

권리담론에서 책임담론으로 - 커뮤니티 통역을 중심으로*

이 향
(한국외대)

1. 들어가는 말

어떤 연구 주제의 경우, 주제의 선택 자체가 하나의 입장표명이 된다. 역을 한 누명을 쓰고 법정에서 선 이민자를 위한 통역을 연구하는 것은 프랑스어 부분관사를 한국어로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을 수 없다. 부분관사 번역 문제가 덜 중요하다거나 무가치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대체로 언어(학)적 차원에서 연구 가능한 부분관사 번역 문제와 달리, 이민자를 위한 법정통역은 설령 법정이라는 구체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통역 상황의 객관적 기술을 목표로 삼는다 하더라도 통역 혹은 통역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 이 연구는 2015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커뮤니티 통역(Community Interpreting)¹⁾을 연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입장표명이다. 커뮤니티 통역을 정부 기관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방식의 통역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하건, 혹은 사회적 약자가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단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역으로 좁게 규정하건, 커뮤니티 통역은 통(번)역이, 더 나아가 통(번)역사가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 없이는 연구되기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랫동안 국제회의통역(Conference Interpreting)을 제외한 ‘나머지 통역’으로 뭉뚱그려져 일종의 ‘여집합’처럼 취급되어 오던 커뮤니티 통역이 번역학 안으로 들어와 오롯이 학술대회의 주제²⁾가 되고, 법정 통역, 의료 통역 등 특수한 유형의 통역 상황이 사례연구 형식으로 학계에 소개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현상이다. 물론 번역학의 무게 중심이 텍스트로부터 통번역 수행 주체인 통번역사로 이동하고 있음은 이미 오래전에 확인된 바이고 이러한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그 어떤 통역보다도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통역을 수행하는 커뮤니티 통역사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높아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Pym 2001: 137). 사회문화적 여건상 커뮤니티 통역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 현실에서, 일찍부터 이 주제가 제한적으로나마 연구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커뮤니티 통역의 사회문화적 함의를 조기에 감지하고 꾸준히 관심을 가져 온 소수 연구자들의 노력 덕택이다.

필자는 커뮤니티 통역과 관련하여 실무적, 이론적 차원에서 제한된 지식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국내외 커뮤니티 통역 현황을 상세하게 기술하거나 분석하는 것은 필자의 역량을 넘어서는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

1) 학계에서는 저자에 따라 community interpreting, liaison interpreting, public service interpreting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며 각 개념들 간의 의미차이도 있겠으나, 여기서는 community interpret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고, 한국어로는 ‘커뮤니티 통역’을 일관적으로 사용한다. 용어들 간의 개념적 차이에 대한 설명은 헤일(Hale 2011: 345)을 참고한다.

2) 한국번역학회는 2015년 봄 학술대회의 주제로 ‘커뮤니티 통역’을 선택하였다. 이 논문은 이 학술대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참고: 「한국번역학회 2015년 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48-53.)

(http://www.kats.or.kr/modules/bbs/index.php?code=notice&mode=view&id=232&__M_ID=59)

통역과 관련하여 제기 가능한 몇 가지 물음들을 던져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시도해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커뮤니티 통역을 ‘안으로부터’ 상세히 논한다기보다는 이 주제를 (때로는 번역학의) ‘바깥에서’ 조망하면서 번역학이 커뮤니티 통역을 논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짚어본 후, 이를 토대로 향후 번역학 담론의 전개방향에 대한 나름의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2. 커뮤니티 통역,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가?

커뮤니티 통역 관련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각도에서 흥미로운 논의들이 전개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 연구들로는 국내 법정통역 실태에 대한 연구(김진아 2008), 전문사법통역사에 대한 연구(김진아 외, 2009), 의료통역사 교육 사례 연구(곽중철 2010, 정철자 2010), 난민재판 통역의 품질에 관한 연구(이지은 2012), 한국내 외국인을 위한 통역서비스 연구(이지은 외 2014) 등을 언급할 수 있다.³⁾

커뮤니티 통역관련 기존 연구들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개념적 작업이다. 커뮤니티 통역이 국내에서는 생소한 개념인 만큼, 다수 연구자들이 “Public Service Interpreting”, “Community Interpreting”, “Liaison Interpreting” 등이 혼용되는 데 따른 개념적 혼란, 그리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인식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개념적인 정리를 시도한다. 예를 들어 류현주(2006: 93)는 커뮤니티 통역을 국제회의 통역과 비교, 설명하면서 교육 프로그램, 자격제도, 취업 분야가 국제회의 통역과 판이하게 다른 커뮤니티 통역에 대한 명확한 개념설정과 연구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초기에 지역사회통역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던 이 통역이 오늘날 대체로 ‘커뮤니티 통역’이란 명칭으로 수

3) 의료통역 관련 연구들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통역이 아닌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통역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엄밀한 의미의 ‘커뮤니티 통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럼된 것은 이러한 연구들 덕분일 것이다.

두 번째는 커뮤니티 통역의 국내 현황이나 수요를 분석하여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실태보고’ 성격의 연구이다. 예를 들어 이지은(2014)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들을 파악하고 각 기관별 통역서비스의 운영방식, 서비스 인력 교육 문제 등을 상술하고 있다. 여기서는 관계자 인터뷰나 설문조사, 통계자료 등이 함께 제시되고 그 과정에서 실무적, 제도적 차원의 한계나 문제점들이 언급되기도 한다.

세 번째는 해외 사례 소개이다. 커뮤니티 통역의 선진국인 캐나다, 호주, 미국에서의 커뮤니티 통역사 양성과정, 관리 시스템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되고, 이러한 우수한 제도적 장치들이 국내의 열악한 커뮤니티 통역 현실과 대조되기도 한다. 김진아(2008)는 미국과 캐나다, 유럽의 법정통역사 양성 관련 규정이나 제도들을 개괄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법정통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한다.

네 번째는 이상의 분석들을 토대로 하여 연구자가 대안과 개선책을 제시한 ‘정책제안’ 성격의 논의들이다. 예를 들어 김진아 외(2009)는 법정 통역의 국내 상황을 기술하면서 인력 부족 문제, 인식부족의 문제 등을 언급한다. 이 밖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대체로 커뮤니티 통역사들의 열악한 근무조건, 전문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통역사 인증제도 도입,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한 전문직업화(professionalization)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상의 연구들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실무적, 학문적 차원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러나 엄연한 현실로 존재해 왔던 커뮤니티 통역의 실태, 한계, 문제점에 대한 훌륭한 실증적 자료들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필자는 기존 연구들이 커뮤니티 통역의 개념적 정리를 시도하고 실태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을 제안하는데 무게중심을 두었던 반면,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누락했다고 판단한다.

국내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두 가지 문제, 즉 커뮤니티 통역이 무엇이며 현재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문제(‘what’의 문제)와, 현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의 문제(‘How’의 문제)에 천착해 왔다. 반면, ‘why’의 문제, 다시 말해 왜 커뮤니티 통역이 지금, 국내에서 논의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커뮤니티 통역에 관심을 두어야 하

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내 번역학계는 왜 커뮤니티 통역을 연구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본 연구가 부분적으로나마 답하고자 하는 물음이다.

3. 왜 커뮤니티 통역을 연구해야 하는가?

커뮤니티 통역에 대한 연구의 문제를 what이나 how가 아닌 why의 문제들로 접근하려 하는 순간, 우리는 곤혹스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 주로 이민자를 대상으로 삼는 커뮤니티 통역이 현재 한국의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시급히 연구되어야 하는 주제라고 주장하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소위 커뮤니티 통역 연구의 ‘본산지’들과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비율은 겨우 3퍼센트⁴⁾ 정도로, 이민자 비율이 인구의 20퍼센트를 훌쩍 넘어서는 캐나다나 호주의 상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인구 구성상의 차이를 무시하고 이민자 비율이 높은 국가들의 발전된 커뮤니티 통역 시스템을 기준으로 삼아 그보다 열악한 국내 현실을 개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민자 비율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커뮤니티 통역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물론 우리나라도 인구대비 이민자 혹은 외국인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제도적 미비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바, 유사한 상황을 먼저 겪은 다른 국가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다문화 사회⁵⁾로의 본격적 진입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굳이 커뮤니티 통역이 아니어도 번역정책, 번역품질 관리 등 모든 영역에 적용 가능한 것이 아닌가? 우리보다 번역 인식이 앞선 국가의 경험을 활용하여 우리 상황을

4) 2013년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 수는 총 1,576,034명이며 2013년 대한민국 인구총수는 대략 51,378,574명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비율은 대략 3.06퍼센트이며 불법체류자(대략 183,106명)를 포함할 경우 비율은 이 비율은 대략 3.4퍼센트로 올라간다. (참고: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6)

5) 강지혜는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 담론을 논하며, 일반적으로 전체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어야 ‘다문화사회’로 불리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로서는 한국을 다문화사회로 규정하기 어려움을 지적한다(강지혜 2013: 10).

개선하는데 참고하자는 주장은 어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따라서 새로운 것 없는 주장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다문화 사회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커뮤니티 통역을 연구하는 것이 예를 들어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문학번역의 품질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놓여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총 발행도서에 서 번역도서의 비중이 40퍼센트가 넘는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커뮤니티 통역보다는 출판번역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더 시급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참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3: 124) 혹은 주요 언어가 아닌 주변언어인 한국어의 위상을 감안, 한국문학의 외국어로의 번역을 연구하는 것이 국내 현실에 더 적합한 선택이 아닌가?

이러한 물음들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호주, 미국, 캐나다에 비하여 커뮤니티 통역 수요가 훨씬 적은 우리나라에서 왜(Why) 그것을 연구해야 하는가? 왜 커뮤니티 통역이 학술대회 주제로 선택되어야 하는가? 하루 100만원에 이르는 통역료를 받는 동시통역사 뿐 아니라, 시급 3만원에서 5만원을 받고, 심지어 무보수로 통역을 수행하는 커뮤니티 통역사의 역할에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상의 물음들은 번역학의 바깥에 위치한 외부자의 입장에서는 쉽게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다. 따라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내부가 아닌 외부의 시선으로 커뮤니티 통역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국내 번역학계가 커뮤니티 통역을 논의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논의가 왜 지금 필요한지를 큰 틀에서 고민해 보아야만 이상의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것이다.

4. 커뮤니티 통역, 무엇이 특수한가?

커뮤니티 통역의 ‘문제제기적’ 측면에 주목한 헤일은 커뮤니티 통역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문화적 차이나 통역 스킬 등 통역 관련 문제(interpreting-related issues), 근무조건이나 제약 등 맥락 관련 문제(context-related issues), 이해나 인식 부족, 품질 등 관련자 관련 문제(participant-related issues), 교육 부족 제도적

미비, 열악한 처우 등 시스템 관련 문제(system-related issues) 등 네 가지로 범주화한다(Hale 2007: 138). 그런데 실제로 이상의 네 가지 범주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맥락의 문제와 시스템의 문제는 대체로 연동되어 있을 것이며 통역 관련 문제와 인식부족의 문제 역시 서로 얽혀 있다. 실제 커뮤니티 통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이보다 훨씬 복잡적일 뿐 아니라 어떤 사회문화적 공간에서 통역이 수행되느냐에 따라 극도로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임이 자명하다.

앞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커뮤니티 통역을 단순히 제도적 필요성이나 사회적 수요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면 우리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정리하자면, 국내에서는 커뮤니티 통역의 주 대상인 이민자의 비율이 미국, 호주, 캐나다 등과 비교하여 턱없이 낮은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학문적 차원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왜 이 주제가 지금 여기서, ‘우선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는 답하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는 답변의 실마리를 오히려 커뮤니티 통역이 담지하는 모종의 특수성에서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커뮤니티 통역이 고유하게, 혹은 특수한 방식으로 제기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규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커뮤니티 통역 연구의 정당성이나 필요성을 증명할 근거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것을 ‘윤리’의 문제라고 판단한다. 현재까지 국내 번역학 담론은 주로 실무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구체적 문제의 해결에 집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통역 현장, 번역 현장, 혹은 통번역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기술하거나 분석하고 해법을 제안하는 연구들은, 실무에서 출발하여 연구 공간으로 옮겨온 (필자를 포함한) 다수의 ‘practisearcher’ 들에게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윤리 담론을 비롯한 사변적, 철학적 성격의 담론이 개진될 여지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다.

국내외 번역학계에서 윤리담론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첫 번째는 번역에 대한 철학적, 사변적 성격의 윤리담론이며, 두 번째는 통번역 실무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직업윤리 담론이다.

우선 철학적 윤리담론의 경우, 대체로 통역보다는 번역, 그 중에서도 문학번역에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다. 여기서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번역자가 낯선 언어, 낯선 텍스트, 더 나아가 낯선 문화로 대변되는 ‘타자’를 어떻게 받아들여

야 하는가의 문제, 한마디로 타자의 ‘수용’ 문제로 압축된다. 이러한 논의를 촉발시킨 핵심적 저자라고 할 수 있는 베누티(Venuti)의 번역윤리는 소수어를 해방시키고, 지배적 언어인 ‘영어’안에 낯선 이국의 흔적을 남기는 방식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주장으로 요약된다(임호경 옮김 2006).

베누티의 착상에 이론적 모태가 되었던 프랑스의 번역철학자 베르만(Berman)의 ‘윤리적 번역(traduction éthique)’ 혹은 ‘문자 번역(traduction de la lettre)’ 역시 유사한 개념이다. 모든 것을 자국화하는 ‘자민족중심주의적 번역(traduction éthnocentrique)’의 반대 개념으로 제시된 베르만의 문자 번역은 한마디로 타자의 낯섦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번역이다(윤성우, 이향 옮김 2011).

그러나 이상의 논의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핼은 베르만의 윤리가 번역의 주체인 번역사를 누락시킨 ‘번역물의 윤리’라고 비판하며 번역의 윤리가 아닌 번역사의 윤리에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Pym 1997: 10)⁶⁾.

베누티와 베르만의 논의는 그 추상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담론의 진원지가 서구 강대국인 미국과 프랑스라는 점에서 국내 번역담론에 그대로 대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미국이나 프랑스와는 달리, 우리에게 낯선 타자는 종종 약자가 아닌 강자였으며, 따라서 타자를 수용하는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기조차 어려웠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음을 고려할 때, 베르만의 번역 윤리는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리기도 한다. 결국 서구 강대국 내부에서 패권적 언어인 영어와 프랑스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골자로 하는 베르만이나 베누티의 윤리담론을 중심이 아닌 주변에 위치한 한국이라는 공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내 연구자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6) “베르만의 번역윤리는 지나치게 아카데미적이고, 지나치게 지적이며,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문학적, 혹은 철학적 작품의 문자적 번역에 국한되는 구상이, 그 외의 나머지 영역을 모두 괄호로 묶어버리고 그것을 비정통적인 어떤 것, 사회적, 상업적 요소로 인해 훼손된 것인 양 내쳐도 좋은가?”

“l'éthique de Berman était en elle-même trop académique, trop intellectuelle, trop abstraite. Un projet qui se limite à la traduction littérale des oeuvres littéraires ou philosophiques doit-il condamner pour autant tout le reste de la profession aux guillemets, c'est-à-dire à une pratique en quelque sorte non-authentique, dégradée par le social et par le commerce?”(Pym 1997: 9)

윤리 담론의 두 번째 축은 윤리 문제를 통번역 현장에 적용 가능한 직업윤리(code of ethics) 차원에서 풀어낸 담론이다. 철학적, 사변적 윤리담론이 주로 문학번역에 국한되어 진행되었다면, 직업윤리는 실무현장에서 통(번)역사가 직업인으로서 지켜야 할 일련의 원칙 형태로 기술된다. 특히 커뮤니티 통역에서의 윤리 문제는 철학적 사변적 차원보다는 주로 직업윤리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지은(2015)은 일반적인 통역사의 직업윤리가 커뮤니티 통역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확인하며, 커뮤니티 통역 국제표준(ISO 13611)에 명시된 커뮤니티 통역사의 역할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 해당 지역의 실무 윤리 규정을 항상 준수한다.
- 국제표준이 정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커뮤니티 통역 업무를 수락한다.
- 적절한 교육, 훈련, 자격을 결한 업무를 거절한다.
- 대화 주체 쌍방의 진술을 경청하고 보디랭귀지를 관찰하여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를 모두 전달하며 불필요한 가감변경 없이 통역한다.
- 대화 주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흐름을 관리한다(예: 적절한 속도로 말하고 한 번에 한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하기)
- 통역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말을 너무 빨리 할 때에는 개입한다.
- 문화적 뉘앙스를 이해하고 전달한다.
- 커뮤니티 통역사가 잘 모르는 용어나 표현에 대해 설명을 요청한다. 허용 가능하고 필요한 상황일 경우에는 불명확하고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어렵게 말하는 당사자에게 쉬운 말로 다시 말해줄 것으로 요청할 수 있다.
-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개입할 경우에는 커뮤니티 통역사로서 말한다는 점을 ‘통역사로서 말하자면’, ‘통역사로서 말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밝힌다.
- 요청이 있거나 가능한 상황에서는 문화적 차이가 소통에 어려움을 야기하거나 오해를 낳을 소지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장애요인을 지적하되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오해를 해소하도록 하게 한다.
- 요청을 받더라도 개인 의견과 자문을 제공하거나 옹호자의 입장에 서지 말고 커뮤니티 통역사의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 법정통역과 사법통역에 별도의 기준과 법제도가 있는 국가에서는 일반 커뮤니티 통역사가 사법통역을 맡지 말아야 한다. (이지은 2015: 98)

엄밀히 말해 윤리(ethics)와 직업윤리 사이에는 다소의 거리가 있다. 윤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은 삶, 선한 삶에의 지향과 맞닿아 있다면, 이 추상적 개념을 특정 직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준수해야 할 일련의 가이드라인 형태로 풀어낸 것이 직업윤리이다.⁷⁾ 통(번)역사의 직업윤리 담론은 실제 그것이 충실하게 지켜지는가의 여부와 별개로 거창한 윤리담론이 제공하지 못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핼이 지적한 것처럼 직업윤리가 포용하지 못하는 사례들을 끄집어내어 비판하는 것은 쉬우나, 추상적 윤리담론을 현실로 끌어내려 구체적 원칙으로 기술하는 작업이야말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Pym 2001: 133)⁸⁾. 다시 말해 실무자가 봉착하는 모든 문제적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할지언정, 해당 직업이 준수해야 할 도의적 원칙들을 직업윤리 형태로 명문화하여 공유하는 작업이야말로 학문적 논의를 실제 현장으로 연결하는 핵심적 작업인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구체적 원칙들의 실무적 효용성과 별개로, 위의 윤리강령을 통해 우리는, 커뮤니티 통역사가 소위 중립성을 지키고 자신의

7) 번역학 전문학술지인 *The translator*는 이미 2001년 윤리의 문제를 다룬 특별호를 기획하였다. 총 10편의 논문과 6편의 서평이 실린 이 특별호에서는 실제 실무 상황들, 예를 들어 반세계화, 번역사 착취, 토크쇼 통역, 지진이나 전쟁 상황에서의 통역사의 역할, 그리고 그 역할의 수행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이 논의되었다. (참고: *The translator*, 2001 7(2): The return to ethics). 이 특별호의 Guest Editor였던 핼은 서문에서 ‘ethics’와 ‘deontology’(code of ethics)를 구분하며, 전자가 주로 자신과 타자(혹은 타자성)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면 후자는 특정 직업군이 준수해야 할 것으로 간주되는 규범이나 규정을 총칭하는 것으로 설명한다(Pym 2001: 133). 이 특별호의 출판으로부터 4년 전인 1997년, 핼은 1994년 프랑스 철학연구소에서의 세미나 내용을 정리하여 프랑스어로 쓴 자신의 저서 *Pour une éthique du traducteur* (1997)을 출판한 바 있다. 훗날 프랑스의 번역철학자 메쇼닉은 핼의 윤리론이 실제로는 윤리가 아닌 직업윤리(déontologie)를 다루는데 그치고 있다고 비판한다(Meschonnic 2007: 11).

8) “It is not hard to take the official codes of ethics, reveal their limitations and contradictions, deplore their inadequacy, and then move to higher ideological realms. Yet the reverse movement should also be possible, from alterity to deontology. That is, once we have established the kind of general relation to be obtained, we should be able to generate terms and principles for a multiplicity of professional relations [...]”(Pym 2001: 133).

역할에만 머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통역사가 ‘요청을 받더라도’ 통역사의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원칙은 실제 그러한 ‘요청’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따라서 ‘중립성’의 원칙만으로 해명되지 않는 커뮤니티 통역의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더구나 커뮤니티 통역사가 어떤 상황에서든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 반대하며, 오히려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옹호자(advocate)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사범통역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는 중립성과 거리두기의 원칙(the principle of neutrality and detachment)이 전문 지역사회통역사와 통역교육자 간의 논쟁에서는 핵심적인 이슈이다. 지역사회통역에서 가장 적절한 수준의 관여와 거리두기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한다. 실제 통역현장에서 통역사는 흔히 이주민의 대변인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관의 ‘도구’로도 인식된다는 점에서 딜레마에 빠진다. 이는 지역사회통역사가 상반되는 두 관점에서 모두 잠재적 ‘변절자’로 인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통역사가 중개인으로서 겪는 딜레마는, 대부분의 국가에 존재하는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적대감, 민족간 긴장관계,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더욱 증폭된다. (Wadensjö 2008: 44; 번역은 강지혜 2013:17에서 인용)

한마디로 커뮤니티 통역에서 ‘적절한 수준의 관여와 거리두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이는 커뮤니티 통역사의 윤리 문제가 통번역 스킬이나 직업윤리 차원에서 해명되기엔 지나치게 ‘뜨거운’ 주제를 다시 한 번 드러내 준다.

실제로 커뮤니티 통역사는 종종 가치중립적 중개자로 평온히 남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 속에 내동댕이쳐진다. 우리 사회 안으로 들어온 이민자나 난민을 위해 법정에서 혹은 다문화센터에서 통역하는 통역사들에게 ‘낮선 것’(종종 낯선 약자)과의 부딪힘, 그로부터 오는 시련은 생생한 일상이 된다. 그 안에서 통역사의 직업윤리, 본분, 역할, 사회적 소명 등의 문제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된다. 이것이 바로, 커뮤니티 통역사의 윤리 혹은 직업 윤리 문제가 실무상황에서 유리된 철학적 윤리론이나 메타적 논의를 배제한 실무적 직업윤리론 중 어느 한쪽만으로 온전히 해명되기 어려운 이유이다.

커뮤니티 통역에서 제기되는 윤리의 문제는 철학적 담론에서 접근하건, 직업윤리 차원에서 접근하건, 결국 하나의 근원적 물음으로 압축된다.

통역이나 번역이, 혹은 통번역 연구자가 공동체 내의 소수자, 난민, 이민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더 넓게는 통번역이, 혹은 통번역사가 사회 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중립성과 객관성의 원칙으로 대체로 해명되는 여타 통역과는 달리, 커뮤니티 통역이 특수하고 첨예하게 제기하는 문제인 것이다.⁹⁾ 우리가 커뮤니티 통역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5. 권리에서 책임으로

이제 다시 우리의 물음으로 돌아가 보자.

번역학은 왜 커뮤니티 통역을 연구해야 하는가?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다.

첫째, 커뮤니티 통역이 현재까지 국내 번역학계에서 상당히 막연한 방식으로만 언급되었던 ‘타자’, ‘윤리’, ‘낮선 것’을 구체적 현장 속에서 논의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안에서 통번역이 혹은 통번역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커뮤니티 통역은 국내 번역학 담론이 권리담론으로부터 책임담론으로 이행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국내 번역학 담론을 특징짓는 키워드가 무엇이냐고

9) 이 문제와 관련하여 펴온 다양한 형식의 대화통역(dialogue interpreting)이야말로 윤리의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제기되는 영역임을 지적한 바 있다. "The ethics of alterity, of whole communicative situations with the Other, is undoubtedly the area into which most other approaches are currently feeding. Not by chance, many of the papers closest to this position actually address interpreting, especially various forms of dialogue interpreting, where the people involved are mutually present and intuitively carry more ethical weight than do their texts"(Pym 2001: 134).

묻는다면, 필자는 그것을 ‘권리담론’으로 규정하겠다. 필자를 포함한 많은 연구자들을 종종 흥분하게 만드는 황당한 오역 사례에 대한 연구를 떠올려 보자. 번역은 외국어만 할 줄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뿌리 깊은 편견을 타파하고자 했던 이러한 연구들은 번역이 가지는 전문성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였고, 이는 다른 말로 하면 통번역을 수행하거나 연구하는 ‘우리’의 전문성을 인정해달라는 목소리였다. 통번역 실무자, 통번역 연구자들은 협회를 만들고, 학회를 만들고, 현장을 만드는 등의 활동을 통해 통번역은 전문가가 수행해야 하고, 통번역 교육 역시 전문가들이 수행해야 함을 역설해 왔다. 통번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척박한 국내 현실에서 이러한 권리담론들은 통번역 실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분명 필요한 논의들이었고, 또 실제로 그러한 기여를 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번역학 바깥에서 이러한 담론들을 바라볼 경우, 통번역(학)계의 권리담론은 우리사회의 수많은 직업군에서 내는 목소리 중 하나에 불과하다. 우리의 주장은 의약분업이 도입되던 2000년도 당시 인구에 회자되었던 슬로건,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와 같은 맥락에 있다. 통번역은 전문통번역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커뮤니티 통역사의 전문직업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동일한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다.

우리가 다른 직업군들로부터 들려오는 권리담론에 무심하듯, 우리의 권리담론 역시 대부분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찻잔 속의 폭풍으로 끝나고 만다. 권리담론이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책임담론’이 함께 가야 한다.

물론 우리의 권리담론은 일정 부분 책임담론과 함께 해 왔다. 그런데 우리의 책임담론은 종종 번역학계 내부보다는 외부를 겨냥해 왔다. 예를 들어 중요한 외교문서의 번역을 수습사원에게 맡기는 정부기관의 책임(혹은 무책임), 중요한 법정통역을 검증되지 않은 비전문 통역사에게 맡기는 담당공무원의 책임(혹은 안일함), 공들인 번역문을 마음대로 난도질하는 출판사의 책임(혹은 상업주의), 통역이나 번역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혹은 몰이해) 등이 그것이다.

이렇듯 통번역을 둘러싼 외부 주체들을 겨냥한 책임담론들은 우리 스스로의 책임을 묻는 일보다 손쉽다. 제도 정비나 인식제고를 촉구하는 일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일에 비해 편하다. 권리담론이 책임담론으로 이행하

는 것이 어려운 근본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권리담론에만 머무를 경우, 오늘날 국내의 번역 현실, 번역학의 위상, 통번역사의 지위 문제는 상당 부분 우리 책임이 아닌 것이 된다. 과연 그런가? 지금 현재 번역학을 공부하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책임이 무엇인지 묻지 않아도 되는가? 우리 스스로를 겨냥하는 책임담론을 건넌 채, 우리의 권리담론이 반향을 얻을 수 있을까?

6. 결론을 대신하여: 책임담론이 깊어져야 할 물음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번역학계의 책임담론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필자는 번역학에서의 책임담론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불편하고 거북한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 출발점은 정부기관도, 출판사도, 통번역 실무자도 아닌 번역을 연구하는 필자를 포함한 번역학 연구자들의 책임에 대한 논의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번역학이라는 학문이 태동한 시점으로부터 대략 1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번역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일차적으로 번역학이라는 학문이 제대로 된 반석위에 서게 할 책임, 양질의 연구를 생산하고 번역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책임이 있다. 현재 한국에서 번역학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현재 이 학문 공간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두려운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인문학 전반의 위기를 논하고 있는 지금, 실무로서의 통번역, 학문으로서의 번역학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번역학 연구자의 수도 분명 늘었고 다양한 연구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팽창’이 ‘질적 성숙’으로 이어졌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번역학이 성립 초기인 15년 전에 비해 연구방법이나 학문적 엄격성 차원에서 성숙해졌는가?

번역학 전공자, 어문학 전공자, 인접학문에서 건너온 연구자들이 모자이크를 이루고 있는 번역학계에서 이들 간의 학문적 협력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새로운 이론들이 꾸준히 소개되고 소화되어 비로소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있는가?

개별 연구자들은 연구언어, 출신 학교, 전공을 넘어서서 횡적으로 연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영어를 연구어로 하는 전공자가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번역담론에 조금의 자리를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영어 아닌 언어를 연구어로 하는 필자를 비롯한 연구자들은 번역학의 연구 공간에서 명확한 좌표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

영상번역, 품질평가, 번역교육, 커뮤니티 통역 등 각기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이 자신의 칸막이 밖으로 걸어나와 번역학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필자는 통번역의 역할, 통번역사의 책임, 궁극적으로는 현재 한국의 번역학계에 주어진 책임을 묻는 혹독한, 그러나 에둘러 갈 수 없는 논의가, 다른 어떤 곳도 아닌 이곳에서 우리 스스로에 의해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필자의 줄고자 그러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작은 계기가 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다.

참고문헌

- 강지혜 (2013) 「다문화 담론에서 통역의 역할 연구」, 『번역학연구』 14(5): 7-42.
- 곽중철 (2010) 「2009년 한국 1기 의료통역사 교육 사례 연구」, 『번역학연구』 11(1): 7-43.
- 김진아 (2008) 「법정통역의 실태와 향후 과제」, 『통번역학연구』 11(2): 21-37.
- 김진아, 정혜연, 이상빈 (2009) 「전문 사법통역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그에 따른 대책」, 『통번역학연구』 12(2): 125-44.
- 류현주 (2006) 「커뮤니티통역의 전문성 제고 방안」, 『번역학연구』 7(1): 87-103.
- 윤성우, 이향 옮김 (2009) 『낯선 것으로부터 오는 시련』, 서울: 철학과 현실사.
- (Berman, Antoine (1984) *L'épreuve de l'étranger: Culture et traduction dans l'Allemagne romantique*, Paris: Gallimard)
- 이지은 (2012) 「난민재판 통역의 질에 대한 고찰: 통역인의 역할에 관한 사례

- 연구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4(1): 213-36.
- 이지은 (2015) 「커뮤니티 통역사의 역할에 관한 논의」, 『통역과 번역』 17(1): 89-124.
- 이지은, 장애리, 최문선, 허지운 (2014)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을 통해 본 지역사회통역 사례연구」, 『번역학연구』 15(3): 177-210.
- 임호경 율김 (2006) 『번역의 윤리: 차이의 미학에 관하여』, 서울: 열린책들.
(Venuti, Laurence (1998) *The Scandals of Translation: Towards an Ethics of Difference*, London & New York: Routledge)
- 정철자 (2010) 「시장 수요 조사에 근거한 한국형 의료 통역 연구」, 『번역학연구』 11(2): 151-72.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3) 「2013 출판산업 실태조사」, 2015년 6월1일 검색
(http://www.kpipa.or.kr/info/studyrepotView.do?board_id=51&article_id=11914&pageInfo.page=&search_cond=&search_text=&list_no=29#)
- Hale, Sandra (2007) *Community Interpreting*,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 Hale, Sandra (2011) 'Public service interpreting', in Kirsten Malmkjær and Kevin Windle (eds) *The Oxford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343-56.
- Meschonnic, Henri (2007) *Ethique et politique du traduire*, Lagrasse: Verdier.
- Pym, Anthony (1997) *Pour une éthique du traducteur*, Paris: Artois Presses Université; Presses de l'Université d'Ottawa.
- Pym, Anthony (2001) 'Introduction: The return to Ethics in Translation Studies', *The Translation* 7(2): 129-38.
- Wadensjö, Cecilia (2008) 'Community Interpreting', in Mona Baker and Gabriela Saldanha (eds)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2nd e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43-48.

[Abstract]

Community Interpreting:

The Key to Shifting Translation Discourse from Right to Responsibility

Lee, Hya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current research in South Korea on community interpreting focuses primarily on various problems community interpreters face on the job and possible solutions. However, it fails to address the fundamental question of why community interpreting merits discussion among translation scholars in the first place.

This paper is organized into three parts. First, it presents an overview of South Korean research on community interpreting and analyzes major research trends. Second, it argues that community interpreting raises unique ethical questions that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on the role of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in society, and therein lies the necessity of further research on community interpreting. Third,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discourse on community interpreting could help shift the emphasis of South Korean translation studies from demanding the rights of interpreters, translators, and translation scholars to recognizing their social responsibility.

▶ Key Words: community interpreting, ethics, deontology, code of ethics, responsibility

이 향

한국의국어대학교 프랑스학과

leehyangmarina@gmail.com

관심분야: 연구방법론, 번역철학, 통번역교육, 번역품질평가

논문투고일: 2015년 7월 31일

심사완료일: 2015년 9월 2일

게재확정일: 2015년 9월 24일